

‘이상한 나라’의 찰스 도지슨 루이스 캐럴이 꿈꾸는 창의적 개인과 사회

류연지 강의를담교수, 대전대학교¹⁾

초록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은 19세기 영국사회에서 학식을 갖춘 백인 남성임에도 주류 집단에 속하길 거부했던 찰스 도지슨(Charles Dodgson)의 필명으로, 그는 새 이름을 내세워 당시 지배 가치에 반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 1865년 첫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는 캐럴의 대표작으로 출간과 동시에 그를 영국의 위대한 작가 반열에 오르게 하며,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 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를 탄생시킨다. 본고는 두 작품에서 개인과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상한 나라’와 ‘거울 나라’라는 기존 사회가 규정한 지식과 질서가 철저히 차단되고 전복된 상상의 나라들을 그리면서 도지슨/캐럴은 ‘틀’ 안에 갇힌 우리사회를 보게 하며, 그 안에서 혼란을 겪는 앨리스에게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게 한다. 본고는 보편의 개인을 대표하는 앨리스가 마주하게 된 새로운 세상이 그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를 거친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일상을 살게 되는 앨리스를 통해 도지슨/캐럴이 꿈꾼 새로운 지식과 질서가 허용되고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창의적’ 개인과 사회에 대해 고찰한다.

키워드

루이스 캐럴, 찰스 도지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나라의 앨리스』, 창의적 개인과 사회

Manuscript received June 19, 2024 / Revision received June 27, 2024 / Accepted June 28, 2024

1) ryu.yeonji@dju.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들어가면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은 영국의 동화 작가 겸 수학자 찰스 럽위지 도지슨(Charles Lutwidge Dodgson, 1832~1898)의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캐럴이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와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에 이어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는 영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중·고등학교 럭비 스쿨(Rugby School)에서 수학하는 등 부족함 없는 교육적 지원을 받는다. 어려서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는 버릇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독을 하며 말보다는 글을 통해 세상을 접하고, 주변과 소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이어 쓴 일기의 일부는 사후 책으로 엮여 출판되기도 하였으며, 일기와 함께 남겨진 약 9만 9천통의 편지들은 오늘날까지도 작가 캐럴과 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에서 근거 자료로 읽히고 있다. 도지슨은 1851년 옥스퍼드(Oxford)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Christ Church College)에 진학하는데, 그곳에서 수학과 신학, 문학을 공부하며 훗날 모교의 수학과 교수를 지내게 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고치지 못한 말 더듬는 버릇은 그로 하여금 성직자의 자격을 얻었음에도 설교를 포기하도록 했고, 그가 ‘교육받은 성인 남성’ 집단에 속하기보다 그 집단 밖에서의 삶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도지슨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위축되지 않았으며,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는 말 더듬는 버릇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한다.²⁾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는 도지슨이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재직할 당시 학장으로 부임한 헨리 리델(Henry Liddell)의 자녀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즉흥적으로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헨리의 자녀들 중 앨리스 리델(Alice Liddell)과 유독 가까웠던 도지슨은 1862년 리델 가족과 함께 간 뱃놀이 소풍에서 처음 ‘앨리스’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지어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이후 앨리스의 요청에 의해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지금의 이야기로 정식 출간되는데, 이 때 도지슨은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을 처음 사용한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지자마자 출판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영국의 위대한 작가 루이스 캐럴을 탄생시킨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성공 후 6년 만인 1871년,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2) 작가의 삶과 작품의 탄생 배경에 관한 내용은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Collins Classics, 2010)에 실린 “Life & Times, About the Author”(v-viii)와 “Biography of Lewis Carroll, Author of Children's Books and Mathematician” (Angelica Frey, 2020, <https://www.thoughtco.com/lewis-carroll-biography-4154153>)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Looking 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라는 제목으로 ‘앨리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출간된다. 그 후 『스나크 사냥』(*The Hunting of the Snark*, 1876), 1889년과 1893년에 발표된 『실비와 브루노』(*Sylvie and Bruno*) 1, 2권 등의 작품들과 시집, 논리학 저서, 그리고 수학자로서 발표한 이론서, 사진집 등이 출간되면서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지금까지도 찰스 도지슨/루이스 캐럴이 영국사회에 남긴 최고의 업적으로 단연 『앨리스』 시리즈가 손꼽히고 있다.

캐럴이 자신에게 각별했던 인물 ‘앨리스’를 중심으로 재현해낸 동화의 세계는 학식을 갖춘 백인 남성이지만 영국의 주류 집단에 속하길 거부했던 혹은 거부당했던, 찰스 도지슨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자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의 원제목이 『지하세계의 앨리스』(*Alice's Adventure Underground*)이고 앨리스의 모험이 “토끼 굴 속으로”(Down the Rabbit-Hole)의 하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거울 나라의 앨리스』 역시 거울 속 뒤바뀐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을 때, 도지슨은 기존 사회의 관념과 질서가 뒤바뀐 창의적 세상과 그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꿈꿔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고는 19세기 영국의 지배 질서가 철저히 차단되고 전복된 ‘지하세계’와 ‘거울세계’를 통해 캐럴/도지슨이 비판하는 당대의 사회상과 그가 꿈꾸는 새로운 관념과 다양한 질서가 허용되는, 즉 ‘창의’가 통하는 개인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Kutzer(2000, p. 15)는 아동문학에는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방식 뿐 아니라 정치적 가치들이 공공연히 반영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소설이 그 가치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동문학의 역할이 아동을 사회에 동화시키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드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Bivona(1986, p. 144)는 앨리스의 세계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잔인한 ‘게임’과 같은 구조로 조직된 것으로 해석하며, 여왕과의 크로켓(croquet) 경기 끝에 결국 모든 적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왕이 필연적으로 승리하여 모두의 주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시기 영국사회에 대한 비유로 분석한다. Bivona(1986)에 따르면 앨리스의 세계는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앨리스는 ‘아동-제국주의자’(child-imperialist)가 된다.³⁾

3) Gaile S. Cannella 와 Radhika Viruru(2004)는 과거를 비롯해 역사를 벗어난 현재의 우리의 삶 또한 제국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식민주의/제국주의’ 담론은 특히 ‘아동’이라는 존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르치거나 사회 구조 속에 가두는 행위를

하지만 앨리스가 모험 속에서 마주한 환경과 인물들에 결코 순응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여왕과의 크로켓 경기 후 법정에 올라 오히려 왕과 여왕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를 ‘아동-제국주의자’로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루이스 캐럴이 만든 판타지 세계가 빅토리아 시대의 법, 교육, 식민주의 등의 특정 이슈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한 Wullschlager(1995)의 연구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앨리스가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한 Bryan(2013)의 연구가 더욱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Wullschlager(1995)는 19세기의 판타지 세계는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탈출구가 되며, 기성의 가치들로부터 오는 혼란을 줄여줄 수 공간이 된다고 말하는데, 캐럴이 그린 ‘이상한 나라’ 역시 당시 도지슨에게 현실 사회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주고 있는 듯하며 19세기 영국사회에 대한 비유인 동시에 비판을 위한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다.

앨리스는 지루함을 느끼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토끼를 쫓다가 결국 깊은 우물과도 같은 토끼 굴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 낙하가 과연 끝나기는 하는 걸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깊게 떨어진 나머지 “어쩌면 지구 한가운데에 와있는지도 모른다”고 느낄 정도로 앨리스는 현실과 철저히 차단된 새로운 공간에 놓이게 된다(Carroll, 2010, p. 3). 현실 세계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의 모험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람의 머리조차 통과할 수 없는 쥐구멍만 한 작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다. 앨리스의 눈 앞에 놓인 탁자에는 “나를 마셔요”(Carroll, 2010, p. 6)라는 문구가 쓰인 병 하나가 놓여 있는데, 앨리스는 그 병이 작은 문으로 자신을 통과시킬 하나의 방법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불리 열어보지 않는다. 그동안 앨리스가 읽어왔던 이야기들에서 ‘규칙’을 무시하여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다른 불행한 일들을 겪은 아이들이 종종 등장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다른 규칙들이 적혀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앨리스의 예측대로 그 병은 모험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고, 병 안에 든 것을 마신 뒤 몸이 충분히 작아진 앨리스는 이제 그 작은 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앨리스의 눈에 띈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탁자 위에 놓인 황금 열쇠였다. 키가 25센티미터 정도로 작아진 앨리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탁자에 오를 수 없자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다.

“자,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지!”하고 앨리스는 자신을 엄하게 타일렀다.

정당화하고 있으나 그것이 결국 국가가 집단과 개인에 힘을 행사하는 ‘제국’의 형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 Amanda Bryan(2013)은 ‘제국주의’가 경제 정책과 국민의 토지 및 자원 착취를 포함한 정치적 지배 행위라면 ‘식민주의’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적 지배로 구분 지으며, ‘식민주의/제국주의’는 루이스 캐럴이 작가로 활동하던 시기 대영제국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아동문학을 포함한 19세기 영국문학 전반의 인기 주제였다고 설명한다.

“당장 울음을 툇 그치라고 충고한다!”

앨리스는 대개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했다. (그 충고를 거의 따르지 않긴 했지만 말이다.) 가끔은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혹독하게 스스로를 혼내기도 했다. 한번은 혼자서 크로케 경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다고 뺨을 치려던 일도 있었다. 이 이상한 아이는 혼자 두 사람 역할 하기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다.

(Carroll, 2010/2015, p. 21)

앨리스는 울음이 터진 자신을 스스로 엄하게 꾸짖으며 당장 울음을 그치라고 충고하는데, 캐럴은 그 전엔 앨리스가 혼자서 크로켓 경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신을 속였다고 뺨을 치려던 것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 이상한 아이가 혼자 두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Carroll, 2010, p. 8)고 말한다. 구은혜(2017, p. 11)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문명화를 앞세워 식민지를 타자화해 맘대로 지배했듯이 아동/자식을 타자화해 맘대로 조정하려는 성인/부모의 욕망이 투영”되어있다고 말하는데, 혼자 두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앨리스에게서 그 아동/성인의 대립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앨리스에게 내재화되어 그녀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하는 어른들의 ‘욕망’과 사회의 ‘충고’들은 그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앨리스가 연기한 아이를 혹독하게 대하는 다른 한 사람의 역할은 결국 “아무 소용없는 것”(Carroll, 2010, p. 8)이 되면서 기존의 고정된 질서와 역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규칙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던 앨리스에게서 Kutzer(2000)가 주장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질서와 규범을 가르치는 텍스트’로서의 아동문학의 역할이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곧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면서 캐럴은 그 혹독한 규칙들에 의문을 나타낸다.

앨리스는 이제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이 통하지 않는 세계에 와 있다. 술하게 외워왔던 구구단과 시, 세계의 지리 등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현실 사회에서 당연했던 질서들 또한 뒤바뀐 상태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생물들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앨리스를 쥐락펴락하는 권위자가 되어있고 갑자기 공작부인의 갓난아기가 돼지로 변하기도 하고, 고슴도치와 홍학이 크로켓 경기의 공과 채로 쓰이는 등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인간의 역할과 위치 또한 전도되어 있다. 앨리스는 아기를 난폭하게 대하는 공작부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아기가 곧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기를 안고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아기가 ‘꿀꿀’ 소리를 내며 울자 “그런 소리 내는 거 아니야”라며 아기를 타이른다 (Carroll, 2010, p. 56). 하지만 계속 아기가 ‘꿀꿀’거리자 앨리스는 돼지처럼 변한 아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현실 세계에 있는 몇몇의 토레 친구들을 떠올린다. 앨리스는 돼지와 다를 것 없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적합한 방법”(Carroll, 2010, p. 57)을

알지 못함에 안타까워 한다.

‘이상한 나라’에 와서도 여전히 현실 세계의 규칙과 방법들을 추구하는 앨리스이지만 캐럴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 규칙과 방법들이 어떻게 사회의 지배 가치가 되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우리 모두 미쳤어. 나도 미쳤어. 너도 미쳤고.” 고양이가 말했다.

“내가 미친 줄 어떻게 알아요?” 앨리스가 물었다.

“틀림없이 미쳤지.”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이 미친 건 어떻게 알죠?”

“우선 개는 미치지 않았어. 너도 그건 인정하지?” 고양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럼 개가 화날 때는 짖고,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드는 거 알지 그런데 나는 기분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그러니까 난 미친거지, 뭐.”

(Carroll, 2010/2015, p. 97-98)

우연히 만난 체셔 고양이(Cheshire Cat)는 앨리스에게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미친 것이다”(Carroll, 2010, p. 57)라고 말하고 있다. 앨리스가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자 체셔는 개는 화날 때 짖고,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드는 반면 고양이는 그와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날 때 꼬리를 흔들기 때문에 자신이 미친 것이 된다고 설명해준다. 캐럴은 개와 고양이의 비교를 통해 각자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Randall(2000, p. 90)이 ‘학교’가 이야기의 안과 밖에서 모두 “제국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Zornado(2001, p. 105)가 당시의 영국 학교를 지배문화를 가르치는 “전형적인 국가기관”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캐럴은 앨리스가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들이 그녀로 하여금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들었을 것임을 지적한다. 그는 “찾아내기만 한다면 모든 것에 교훈이 있다”(Carroll, 2010, p. 85)고 생각하는 공작부인에게 “교훈 같은 건 없을지도 모른다”고 응수하고 앨리스를 비롯한 모두에게 각자 “생각할 권리”(Carroll, 2010, p. 87)가 있음을 짚어내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에 날카롭게 반응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무성한 숲에서 만난 캐터필러(Caterpillar)가 앨리스에게 누구냐고 묻자, 앨리스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때 이후로 하루 사이에 몇 번씩이나 다른 크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자신조차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간단한 소개조차 불가능해진 앨리스를 이해하지 못하

는 캐터필러가 재차 소개를 요구하자, 앨리스는 결국 “나는 내가 아니다”(Carroll, 2010, p. 39)라고 말하고 있다. 캐럴은 ‘이상한 나라’에서 자신을 잃게 된 앨리스를 통해 대영제국의 기반이 된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인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권위적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체의 크고 작음이 인간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없듯이 계속해서 변화를 겪는 앨리스의 몸은 결국 주변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에 맞춰 달리 구성될 수밖에 없는 개인에 대한 강조가 된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적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앨리스는 억압과 폭력을 지성으로 극복해가며 기존의 지식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지슨의 현실 세계는 그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와 다르지 않다. 기존 사회에서 학습한 내용, 체득된 가치와 규범들, 영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층과 계급의 질서, 젠더 이데올로기 등 ‘자신’을 ‘나’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 속에서 살던 도지슨은 앨리스 리델만큼은 ‘창의’가 허용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꾸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에 담아낸다. ‘이상한 나라’의 모험을 마친 앨리스는 권위에 저항하면서 성장해가고 결국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보상을 받고 있다(Ostry, 2003). 현실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기존의 말과 가치가 통하지 않는 꿈의 세계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 세계를 분명히 직시하게 된 앨리스는 ‘지하세계’를 통과하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있다.

3. ‘거대한 체스보드’ 위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모험을 마친 앨리스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거울 나라’로의 모험을 다시 시작한다. 그동안 ‘앨리스’의 이야기를 자아정체성을 획득한 주체적 아이로의 성장서사로 보아왔고, 특히 이전의 모험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성장한 뒤 ‘거울 나라’에서 보이는 앨리스의 모습을 두고는 비로소 ‘여왕’의 자리를 차지한, 완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룬 상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관한 국내의 한 연구는 앨리스를 체스 게임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여왕이 되기 위해 “능동적, 논리적, 자발적”이면서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주체적 주인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거울나라의 체스 판에서 결국 앨리스는 “가장 강력하고 자유롭고 오만한 말인 여왕의 자유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 분석하기도 한다(양윤정, 2009, p. 130). 또한 ‘거울 나라’를 “체스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교묘히 거스르고 동시에 현실의 규범을 패러디하고 전복하는,” 앨

리스의 “자유”가 두드러진 공간이라고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한혜정, 2019, p. 117-18). ‘이상한 나라’에서 처음 겪는 상황들에 눈물을 터뜨리고 그 눈물이 연못을 이룰 정도였던 때와는 달리 ‘거울 나라’에서의 앨리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낯선 환경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능동적인 주인공이 되고 일정 부분에 있어 자율성을 획득한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거울 나라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하나의 ‘줄’이 되어 게임에 임하고 있는 앨리스를 두고 여왕의 자유와 힘을 갖춘 주인공이라 말하기에는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는 공간 이동조차 자유롭지 않은 제한적 존재일 뿐이다. Beckman(2014, p. 14)은 앨리스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그녀에게는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주장처럼 앨리스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던져지며 끊임없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주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앨리스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 보인다.

“거대한 체스 판처럼 표시되어 있네요!” 마침내 앨리스가 입을 열었다. “분명 어딘가에 움직이는 체스 말들도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앨리스가 반갑게 말했다. 흥분한 앨리스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라가 통째로… 지금 두고 있는 거대한 체스 판인 거네요… 여기가 진짜 나라라면 말이죠. 아, 정말 재미있어! 저도 저 말들 중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여할 수만 있다면 병사라도 상관없는데… 물론 여왕이라면 제일 좋겠지만요.”

(Carroll, 2009/2020, p. 42)

거울을 통과하여 ‘거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앨리스는 그 공간에서 체스 판 위의 줄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곳에서 새로운 인물들의 도움을 통해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며 타의에 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Foucault(2003)는 과거 전쟁에서 발휘된 힘과 전쟁을 통해 확립된 권력 관계가 현대 사회의 제도, 경제, 언어 등에 내재된 상태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정치 담론은 사회의 영속적 존재로서의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Deleuze 와 Guattari는 생명정치(bio-politics)를 통한 몸의 결정을 ‘체스 게임’의 규칙에 의해 규제되는 움직임으로 비유하기도 했다(Beckman, 2014, p. 20 재인용). 이들은 ‘체스보드’에서는 모든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움직임이 코드화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체스’는 국가기구의 제도화된 전쟁이 영토화된 권력을 포착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Beckman, 2014, p. 21 재인용).

캐럴이 '거대한 체스보드'로 집약한 사회에서는 원래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같은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밖에 없으며, 어딘가 다른 장소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전속력의 두 배 빠르기로 달려야만 한다”(Carroll, 2009, p. 145). 모험이 시작되기 전 게임 참가에 큰 흥미를 보였던 앨리스는 정작 모험이 시작되자 붉은 여왕의 독촉에 의해서 쉽게 빠르게 달리다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고 있다. 앨리스는 힘에 부쳐 더 이상 나아가길 사양하고 이 곳에 머무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을 바꾸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게임의 규칙대로 다음 장소로 다시 이동해야만 한다.

“병사가 맨 처음에 두 칸을 이동하는 건 알고 있겠지. 그러니 너 세 번째 칸까지 아주 금세 갈 거다…. 아마, 기차로 갈 거야…. 그렇게 바로 네 번째 칸에 도착하게 될 거고. 아, 그곳은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땅이다…. 다섯 번째는 대부분 물로 뒤덮여 있고… 여섯 번째 칸은 험프티 덤프티의 소유지…. 그런데 너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말…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뻐.” 앨리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이걸 모두 말해주시다니 대단히 친절하십니다…’ 라고 말이야. 뭐, 네가 이렇게 말했다고 치고… 일곱 번째 칸은 모두 숲이다…. 하지만, 기사들 중 하나가 네게 길을 알려줄 거야…. 여덟 번째 칸에서는 우리와 함께 여왕이 될 테고, 모두 축제를 열고 즐기는 거지!”

(Carroll, 2009/2020, p. 46-47)

앨리스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전 게임에 대한 상세한 규칙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두 칸을 이동하고, 기차를 타고 트위들덤(Tweedledum)과 트위들디(Tweedledee)가 사는 네 번째 칸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물로 덮여있는 다섯 번째 칸으로 가게 되고, 이어서 험프티 덤프티(Humpty Dumpty)의 소유지인 여섯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모두 숲으로 이뤄진 일곱 번째 칸까지 거쳐야 마지막 여덟 번째 칸에서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 마치 앨리스의 '거울 나라' 여행을 미리 계획하여 제시하듯,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앨리스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그리고 각 장소에서 만나게 될 인물들이 지정되어있고, 그 모험의 끝에 결국 앨리스가 여왕의 신분이 되어 축제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결말까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앨리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규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게임의 '졸'로서 자신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간다.

물론 1장에서 '거울 속의 집'으로 들어간 뒤 가장 처음 만나게 된 붉은 왕과 붉은 여왕, 하얀 왕과 하얀 여왕 앞에서 앨리스는 그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그들을 멋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된다. 또한 2장의 '살아 있는 꽃들의 정원'에서도 앨리스가 꽃들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뽑아버릴 거야!”라며 경고하자 꽃들은 “모두가 즉시 잠잠해지고,

분홍색 테이지 몇 송이는 하얗게 질려버리기도 했다”(Carroll, 2009, p. 139)는 장면에서 앨리스가 모험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여왕의 지배적 위치에 오른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3장의 ‘거울 나라의 곤충들’을 만나는 여정에서 앨리스는 자신의 행선지도 모른 채 기차에 몸을 싣고 있고, 역무원은 앨리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꾸짖고 있다. 또한 앨리스와 마주 앉아 있던 한 신사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자기 이름은 모를지언정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Carroll, 2009, p. 150)라고 호통치며 스스로 사고하며 움직이는 모험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참여자로 존재하고 있는 앨리스를 나무란다.

그렇게 앨리스는 게임의 ‘줄’의 역할에 충실하며 외부의 힘에 의존해 옮겨지고 있으며 “모두가 이름을 잃는 숲”에 도착하여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되찾기도 하며 여행을 이어나가고 있다(Carroll, 2009, p. 155-57). 그리고 결국 마지막 여덟 번째 칸에 이르러서 앞서 예고된 대로 금관이 씌어지며 여왕의 위치까지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구역에서도 적절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여왕이 될 수 있으며, 앨리스는 계속해서 다른 여왕들로부터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Carroll, 2009, p. 229).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여왕들과 그들에게 초대된 사람들 앞에서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Carroll, 2009, p. 238)라고 소리치며 그 혼란한 자리를 스스로 망치고 꿈에서 깨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여왕이 되고자 한 그녀의 꿈은 지켜지지 못한 채 앨리스의 두 번째 여정 또한 ‘이상한 나라’로의 첫 번째 여정과 마찬가지로 ‘꿈’으로 귀결되고 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앨리스는 이 꿈을 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고 있다. 이건 분명 자신 아니면 붉은 왕의 꿈이었을 거라고 말하며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앨리스를 두고 캐럴은 독자들에게도 그동안의 앨리스의 모든 여정이 ‘누구의 꿈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이 꿈을 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자. 이건 중요한 문제야, 키티,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나 핏고 있으면 안 되지... 키티, 이건 분명 나 아니면 붉은 왕의 꿈이었을 거야. 물론, 붉은 왕도 내 꿈에 나왔었지... 하지만 나도 그의 꿈에 나왔는데! 붉은 왕의 꿈이었을까, 키티? 넌 그의 아내였으니까, 알고 있어야 하잖아... 아, 키티 좀 도와줘! 발은 나중에 핏고도 되잖아!” 하지만 알미온 새끼 고양이는 앨리스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다른 발을 핏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누구의 꿈이었다고 생각하나요?

(Carroll, 2009/2020, p. 209)

루이스 캐럴은 꿈 속 세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킨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것이 누구의 꿈이었는지가 아니라 앨리스 스스로 이 여정을 본인의 꿈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트위들덤은 만약 왕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앨리스는 마치 촛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넌 그냥 붉은 왕의 꿈에 나오는 존재일 뿐”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Carroll, 2009, p. 168). 이때 앨리스는 그럴리 없다며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에게 자신은 ‘진짜’라고 소리치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 트위들디는 앨리스에 물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운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여행이 한참 진행되고 마지막 여덟 번째 칸에 이르기 전에 앨리스는 “이 꿈이 붉은 왕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다른 누군가의 꿈에 속하는 사람이 되긴 싫다”는 바람을 내비치는데(Carroll, 2009, p. 209), 정작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자신이 붉은 왕의 꿈의 세계에 있었던 것인지 혹은 붉은 왕이 자신의 꿈속에 존재했었던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며 끝까지 주체적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상한 나라’로의 여정에서 일찍이 꿈의 세계를 거친 바 있는 앨리스는 현실 세계로 복귀한 뒤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빅토리아 시대의 보통의 여자아이로 돌아간다. 앨리스의 언니는 꿈에서 깨 “눈을 뜨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단조로운 현실로 바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언니는 앨리스가 자라 어른이 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듯 먼 훗날에도 주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래전 꿈속의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상상해본다(Carroll, 2010, p. 124). 앨리스의 언니는 시간이 흘러 앨리스가 어른이 되어도 지금의 현실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슨/캐럴이 비판했던 19세기 영국사회의 미래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

Otten(1982, p. 50-54)의 말처럼 앨리스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어린 아이일 뿐이다. 그런 그녀가 자신이 살아온 빅토리아 시대 영국사회의 기준을 ‘이상한 나라’와 ‘거울 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했다면, 그 시도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앨리스가 다시 보통의 여자아이가 되고 그녀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앨리스가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이 사소한대로 살아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꾸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캐럴의 시도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다. Otten(1982, p. 54)이 “앨리스의 환원성(reductiveness)이 확장성(expansiveness)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하듯, 앨리스가 그 과정에서 자신과 사회에 관한 제한된 역할과 고정된 관념들을 깨닫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럴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창의적 미래에 관해 낙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나오며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나 영국의 제국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도지슨은 오랜 시간 엄격한 규칙의 세계에 잠겨 지낸다. 기존 사회의 틀 속에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음에도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익명 혹은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을 내세워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나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물리적 폭력이 아닐지라도 개인에 억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지배 질서와 규범에 관한 도지슨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Drabble과 Stringer(2007, p. 198)는 “‘앨리스’ 이야기의 성공은 당시 대부분의 아동도서에서 보여준 것과 달리 교훈이 없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캐럴의 작품은 아동을 사회에 동화시키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 신념을 가르쳐야한다는 그 시대의 아동문학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의 앨리스 리델을 비롯한 자신이 특별히 애정했던 아이들에게 기존의 가치에 반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와 ‘거울 나라’ 속에서 처음 마주한 환경과 기이한 상황들,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과 동·식물들로 인해 혼란을 겪지만 홀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무사히 모험을 마친다. 캐럴이 그린 앨리스의 여정은 혼란 속에서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인식해가는 도지슨의 성찰로, 그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에도 간하지 않은 창의적 사회와 개인에 대해 꿈꾸도록 한다. 도지슨/캐럴에게 앨리스는 “아주 특별한 게임의 특별한 플레이어”(Rackin, 1982, p. 22)이다. 그는 앨리스가 게임의 규칙에 갇혀 안주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개인으로, 힘을 지닌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도지슨/캐럴은 ‘이상한 나라’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읽는 아이들이 당장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꿈을 꾸는 주체적 주인공으로 성장해가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 구은혜 (2017). 서열의 정치학: 영미 아동문학에 나타난 아동, 권력, 이데올로기. **19세기 영어권 문학**, 21(1), 7-30. DOI : 10.24152/NCLE.2017.02.21.1.7
- 양윤정 (2009).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판타지의 문학적성. **동화와 번역**, 17, 125-53.

- 한혜정 (2019). 체스에서 하이퍼텍스트까지: 『거울나라의 앨리스』 안팎의 게임. *새한영어영문학*, 61(3), 109-29. DOI : 10.25151/nkje.2019.61.3.007
- Beckman, F. (2014). Becoming pawn: Alice, Arendt and the new in narrative. *Journal of Narrative Theory*, 44(1), 1-28.
- Bivona, D. (1986). Alice the child-imperialist and the games of wonderland.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41(2), 143-71. DOI : 10.2307/3045136
- Bryan, A. (2013). Alice's struggle with imperialism: Undermining the British empire through Lewis Carroll's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Th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Studies*, (October), 22-32.
- Cannella, G. S. & Viruru, R. (2004). *Childhood and postcolonization: Power, education, and contemporary practice*. Routledge.
- Carroll, L. (2009).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magic glass*. Oxford World's Classics.
- Carroll, L. (2009).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magic glass*, 성세희 역 (2020). *거울나라의 앨리스*. 코너스톤.
- Carroll, L. (201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Collins Classics.
- Carroll, L. (201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한낙원, 한애경 역 (201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창비.
- Drabble, M., Stringer, J., & Hahn, D. (2007). *The concise Oxford companion to English literature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5-76* (D. Macay, Trans.). Penguin.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Frey, A. (2020, January 23) Biography of Lewis Carroll, author of children's books and mathematician. *ThoughtCo*. Retrieved from <https://www.thoughtco.com/lewis-carroll-biography-4154153>
- Kutzer, D. (2000). *Empire's children: Empire & imperialism in classic British children's Books*. Garland Publishing.
- Ostry, E. (2003). Magical growth and moral lessons; Or, how the conduct book informed Victorian and Edwardian children's fantasy. *The Lion & the Unicorn*, 27(1), 27-56. DOI : 10.1353/uni.2003.0006.
- Otten, T. (1982). After innocence: Alice in the garden. In E. Guiliano (Eds.), *Lewis Carroll: A celebration, essays on the occasions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Charles*

- Lutwidge Dodgson* (pp. 50–61). Clarkson N. Potter.
- Rackin, D. (1982). Blessed rage: Lewis Carroll and the modern quest for order. In E. Guiliano (Eds.), *Lewis Carroll: A celebration, essays on the occasions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Charles Lutwidge Dodgson* (pp. 15–25). Clarkson N. Potter.
- Randall, D. (2000). *Kipling's imperial boy: Adolescence and cultural hybridity*. Palgrave.
- Wullschlager, J. (1995). *Inventing wonderland: The lives and fantasies of Lewis Carroll, Edward Lear, J. M. Barrie, Kenneth Grahame and A. A. Milne*. The Free Press.
- Zornado, J. (2001). *Inventing the child: Culture, ideology and the story of childhood*. Garland.

Charles Dodgson in Wonderland Lewis Carroll's Creative Individual and Society

YEONJI RYU Teaching Professor, Daeje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 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as representative of 19th-century British children's literature. Lewis Carroll is the pen name of Charles Dodgson, the author of both works. As an educated white man in English society at the time, Dodgson was expected to be part of the mainstream, but he refused. He spent most of his time with children rather than in intellectual company, making up stories to tell them, which led to the publication of the Alice stories. The Alice series reflects the 19th century British society, and through these works Carroll criticises the dominant social order and values of the British Empire. This paper examines Carroll's critique of the society of his time and his new vision of the creative individual and society through the 'Underground World' and the 'Mirror World,' where the dominant British order is thoroughly blocked and subverted.

Keyword

Lewis Carroll, Charles Dodgson,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Through the Looking 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Creative Individual and Society

